

전북도-가고시마현, 우호협력 관계 강화

작년 12월 가고시마 도지사 방문 이후 교류 발돋움... 교류협의회 통해 민간부문 등 문화예술 교류 확대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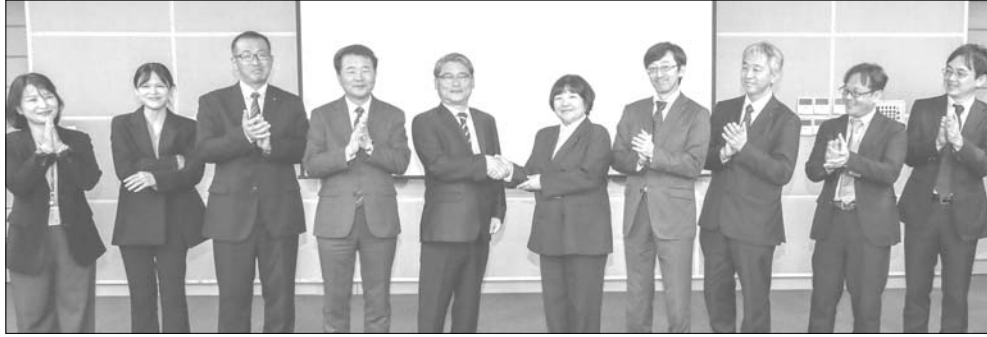
전북도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 등 대표단과 함께 문화, 예술, 산업 등 교류 협의회를 갖고, 전북도-가고시마현간 국제교류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12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본 가고시마를 방문한 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이번엔 가고시마현에서 전북도 청사를 방문했다.

이번 교류협의회에서는 문화예술 교류를 포함한 민간부문 등에 대해 소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제협력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가고시마현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가고시마 현인 페스타'에 전북도 청소년 예술단체를 파견을 약속했다.

양 지역의 협의를 통해 전북도민과 가고시마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대표단과 함께 문화, 예술, 산업 등 교류 협의회를 갖고, 전북도-가고시마현간 국제교류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나혜수 전북도 교육교통협력국장은 "가고시마는 전라북도와 가장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특별한 인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며, "문화, 예술 등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은 "전북도와 가고시마가 오랜 시간 교류를 진행해 폭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양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 등 강점이 많아 도·현민이 하나가 되는 교

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협의회를 기점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가고시마현과 청소년 문화체험 연수 및 학교 교류를 협력하기로 해 초·중·고 청소년 국제협력을 더욱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안전보건네트워크는 군산 새만금벤처센터(GSCO)에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전북 만들기'

전북도·안전보건네트워크, 군산서 안전문화 결의대회 개최

전북도와 안전보건네트워크는 군산 새만금벤처센터(GSCO)에서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이동원 총회장을 비롯해 황대연 도 사회재난과장, 이경환 전 주공노동조합위원장, 이호승 익산고용노동지청장, 유병순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 서찬석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지사장 등 기관대표와 건설·제조·서비스업 협의체별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2023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과 청렴 결의문 낭독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UCC 공모전 발표대회 등이다.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과 청렴 결의문 낭독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산재사고사망자 감소 및 안전문화 확산을 결의했으며, 총 21명에게 전북도지사, 고용노동부 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 전북본부지사장 표창을 수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기진작을 고취했다.

또한 안전보건네트워크 UCC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 개선에 전라북도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장상을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

도·시·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429기 합동 점검

질 높은 충전 서비스 제공·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최선'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공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충전차 충전시설 429기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방해 행위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다 나은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충전시설 고장방치 여부 등 관리실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충전시설 포함)과 그 앞·뒤·양측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여부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안내표지 훼손 여부 등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례를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과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화석연료 차량보다 유지비가 저렴(휘발유 대비 약 50% 절감)한 전기자동차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맞춰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존 일반차량의 주차구역은 축소되고 일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시간을 초과하여도 이동하지 않는 등 충

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어 단속 건수가 313건이었지만 올해는 유예기간이 없어 9월 기준 벌써 4,794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수산인 합동 워크숍 개최

소멸 위기 대응 어촌혁신·지속적 발전 방안 등 논의

전북도와 전북어촌문화지원센터는 25일부터 이틀간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도내 어업인 및 수산관계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수산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도내 어업인과 수산관계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수산 정책 주요 현안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현황의 상황을 공유하며 수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지구 온난화 가속,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수산업 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전라북도 수

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도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27명(민간인 21, 공무원 6)에게 전북도지사 표창을 시상했으며, 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수산 산업화 전략 등 전문가 강의도 실시했다.

(사)전국내수면환경어업협회와 (사)한국계양수산연합회에서는 전라북도 내수면 수산양식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체 생산한 수산 식물을 홍보하기 위해 항어회, 항어초밥, 메가불고기, 메가민두 등 시식 행사를 실시해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김재훈 기자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탐방 실천 인증하고 텀블러 받아주세요'

국립공원공단, 한국관광공사·투썸플레이스와 함께... 내달 19일까지 친환경 탐방 포레스티(Fores:T) 캠페인 진행

국립공원공단은 10월 25일~11월 19일 한국관광공사, 투썸플레이스와 공동으로 가을 성수기 탐방객 대상 친환경 탐방 실천을 촉진하는 '포레스티(Fores:T)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플로깅 캠페인, 페 페트병·알루미늄 캔 수거 재활용 캠페인, 국립공원 야

영장 대화용기 대여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국립공원 내 친환경 탐방 실천 유도 및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포레스티(Fores:T) 캠페인은 국립공원의 산림(Fores)과 바다를 탐방할 때 1회용이 아닌 대화용기를 사용하

거나, 쓰레기 퇴거(플로깅)를 실천하는 장면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텀블러(Tumbler)를 제공하는 친환경 탐방 캠페인이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14세 이상 국민은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2,500명을 추첨하여 투썸플레이스 레드포드 텀블러를 경품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 공지사항 '포레스티(Fores:T) 캠페인'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립공원 현장에 게시된 포스터,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